



이석현 고창경찰서장 취임 간담회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6일 경찰서 과·계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서장과의 취임 간담회를 가졌다. 이석현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경찰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는 경찰,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고창경찰상 확립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현 서장은 경찰대 9기로 전주완산서 경비교통과장, 전북청 교통과장, 전남청 경비과장을 거쳐 이번 인사에 고창군 치안을 책임지게 되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서해랑길 42코스 홍보 팸투어

고창군이 지난 4일 코리아테레길 중 서해랑길을 알리기 위해 걷기 동호회 등 100여명을 모집해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삶의 터전이 되어온 갯벌, 천년고찰을 마주하는 여행 서해랑길 42코스를 걷는 시간을 가졌다. 서해랑길 고창 42코스는 고창의 보물 선운사를 만날 수 있는 코스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동백꽃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꽃무릇을 비롯해 사계절이 아름다운 선운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서해랑길 고창 구간의 대표코스이다. 전문 걷기 동호인으로 모집된 이번 트레킹은 고창 서해랑 쉼터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을 알리고,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선운산의 재미난 해설을 들으며 천년고찰 선운사로 여행을 떠났다.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고창 선운사는 유서 깊은 불교 문화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한 관광명소이다. 참가자들은 팸투어 참여 후 개인 SNS나 동호인 모임을 통해 서해랑길 고창구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고창군에서는 서해랑길 고창구간(41코스~43코스) 중 코스 완보자를 대상으로 두루누비 아플 완보 인증서 완보 뱃지와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 계남면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

장수군 자율방범연합대 계남 자율방범대가 지난 2일 대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10대 대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양종범 대장이 이임하고 충무로 활동해온 김봉관 대장이 취임했다. 새로 취임한 김봉관 대장은 그동안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등 방범대 활동을 이끌어 온 전임 대장의 노고에 감사사를 표하는 전별금을 전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화재시 피난이 쉽지 않아 화재피해가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6.8%이나 사상자는 15.4%를 차지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 위험성이 크다. 사상자 발생요인은 전체 68명의 사상자 중 42명(63.6%)이 연기·가스흡입으로 가장 많았다. 공동주택 화재 시 급박한 상황에서 설치돼 있는 피난시설을 인지하기 어려워 대피 중 잠겨있는 옥상 출입문 근처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사에는 닫혀 있다가 화재 등 비상사에는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는 장치로써 방범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비상구 관리,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다. 소재실 서장은 “2016년 2월 이전 신축된 아파트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며 “옥상출입문 개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설치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도내 곳곳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성료

올 한해 화합·안녕 기원

고창군, 전통 풍어제 행사 열어

전북 고창군이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심원과 해리면에 서 2023년 고창군 전통 풍어제 행사를 열었다. 지난 4일 오후 심원면 하전리 하전 선착장에서 하전 어촌계(계장 권영주)와 주민들이 바지락 풍년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올렸다. 이튿날(5일)에는 해리면 광승리 광승포구(계장 박상현)에서 꽃게 만선과 어업인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하전 풍어제는 달걀 태우기, 소원지 쓰기, 농악단 풍물놀이로 흥겨움을 더하고 참여자들에게 부럼 등 달래품을 전달했다. 심원 하전마을은 국내 최대 바지락 산지다. 다양한 미생물과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개펄과 모래가 섞여 있어 최고 품질의 바지락이 생산된다. 광승어촌계는 꽃게잡이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로 마을의 안전한 조업과 만선을 기원했고 마을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꽃게는 미식가들의 식욕을 한껏 자극하는 꽃게 찜, 탕, 간장 게장 등으로 인기가 높아 많은 곳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무사 안전과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잘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샘고을시장서 ‘방화제’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난 3일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올 한해 무사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방화제(防火祭)가 열렸다. 방화제는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상인과 시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샘고을시장 방화위원회(위원장 이흥구) 주관으로 진행했다. 이날 방화제에는 이학수 시장과 박경수 정읍소방서장을 비롯한 열영선 도의원, 이상길 이만제 시의원, 상인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초헌관을 맡아 제례를 올리며 시장의 번영과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복을 기원했다. 또 방화제를 주관한 방화위원회와 부녀회 청년회는 시민들에게 떡국과 부럼 등을 제공하는 등 세시풍속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서 필봉정월대보름굿 성황

임실군이 지난 4일 ‘제42회 필봉정월대보름굿’ 행사를 필봉마을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 해의 복은 액을 떨어내고 새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굿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었다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됐다. 제42회 필봉정월대보름굿은 기운을 시작으로 당산굿, 마당배이굿, 판굿, 달집태우기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며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화 의미를 담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군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보름 행사 관련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 가운데 진행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신대인읍, 정월대보름 민속 큰잔치

신대인읍 주민들의 무사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2023 신대인읍 정월대보름 민속 큰잔치 행사가 지난 5일 신대인 전통시장 광장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린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신대인읍 이장협의회(회장 정진균), 새마을부녀회(회장 최금순) 회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제기차기와 투호, 고리 걸기, 윷놀이,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 체험과 소원문 쓰기, 막걸리 부스오곡밥, 두부 등) 등이 진행됐다. 2부 행사는 하늘에 복을 기원하는 고전제로 시작했다. 이어 정월대보름 행사의 백미인 달집태우기에서는 6m 규모의 달집을 만들고 읍민들의 소원이 적힌 300여 장의 종이를 달집과 함께 태우며 화려한 장관을 연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 상전·안전·용담서 대보름 행사 잇따라

진안군 상전면(면장 이옥순)과 상전면정장년회는 지난 5일 면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지역 공동체 화합을 위해 ‘계묘년 정월대보름 행사’를 상전면 체련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년가래제, 달집태우기, 소원지태우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됐다. 같은 날 진안군 안전면 정장년회(회장 한안종)도 정월대보름을 맞아 안전면 소공원에서 안전면민들의 안녕과 풍년농사를 위한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4일 진안군 용담면 사회단체(용담면 체육회, 중앙년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부녀회 등)도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2023년 한해의 풍년과 주민들의 건강과 주민들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월대보름 행사를 열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마령면 우석대, 인삼약초산업 진흥 ‘맞손’

진안군 마령면(면장 김명기)은 우석대학교와 손을 잡고 인삼약초산업 진흥 바이오 헬스 및 스마트 관광 육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마령면은 지난 2일 우석대학교 화상회의실에서 ‘산학관 공유·협업 업무 협약식’을 갖고 관련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마령면과 우석대학교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마령면에서는 김명기 면장과 이효영 산업팀장, 농업기술 특작분야(인삼) 손효연 명인이, 우석대학교에서는 이종석 LINC3.0사업단장과 임재윤 바이오헬스CC센터장, 임광희 수소에너지CC센터장, 강순화 스마트관광CC 센터장, 채혜원 LINC3.0사업단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화, △교육, 연구, 기술 등 정보교류, △인력,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교육, 연구, 기술 등 정보교류, △산·학·관 공유·협업을 통한 교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마령면 인삼약초산업 진흥과 바이오헬스 및 스마트관광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마을 안녕 기원...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 당산제

지난 5일 오전 10시에 남원시 보물면 진기리 신기마을에서 천연기념물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 당산제’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여러 관계 내빈과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질 농악단의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당산제 봉행과 소지태우기를 통해 주민 화합과 마을의 안녕을 기리며 성대히 마무리 되었다. 198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는 수령 약 6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단양 우재가 처음 마을에 들어올 때 심은 것으로 전해진다. 느티나무의 크기는 높이 약 20m, 가슴높이의 둘레가 약 9.3m에 이르며, 조선 세조 때 힘이 장사인 우공(禹貢)이라는 무관이 뒷산에서 나무를 뽑아다가 마을 앞에 심고 마을을 떠나면서 나무를 잘 보호하라고 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문화재청과 남원시는 매년 주민 화합과 마을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 당산제’를 위해 제수(祭需)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NH시네마 안전관리 실태 점검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NH시네마를 방문해 화재대피 계획 적정성과 피난·방화·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영화관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곳으로 업종 특성상 구조가 밀폐되어있고 멀티플렉스 형태로 복수의 상영관을 갖추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 인파가 몰려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현장점검의 주요 내용은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및 지도 △비상구 등 대피로 확인 △건물 내 화재 취약 요인 파악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자율안전 관리 강화 당부 등이다. 소재실 서장은 “화재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시설 관계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평소 화재 위험 요인을 잘 살피는 등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                       |                       |                           |
|---------------------------------------------------------------|-----------------------|-----------------------|---------------------------|
| 전주매일                                                          |                       | www.jmaeil.com        | 2024년 11월 28일 금요일         |
|                                                               |                       |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 (주)전주매일 2024년 11월 28일 금요일 |
| 발행·편집인 조봉성                                                    |                       | 부회장 김승곤               | 부사장 김양옥                   |
| 대표전화 288-9700                                                 |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
| 전주지사<br>010-9845-4113                                         | 중원지사<br>010-9888-6674 | 남원지사<br>682-3888      | 임실지사<br>010-9842-2725     |
| 삼천지사<br>010-2338-4791                                         | 인후지사<br>246-6655      | 김제지사<br>556-1227      | 진안지사<br>483-3084          |
| 사산지사<br>272-9417                                              | 순천지사<br>255-2404      | 남원지사<br>682-0955      | 장흥지사<br>538-3787          |
| 호서지사<br>010-6645-9955                                         | 팔복지사<br>253-6844      | 순창지사<br>663-0444      | 장수지사<br>010-3382-6157     |
|                                                               | 군산지사<br>010-6789-0388 | 무안지사<br>010-2425-4182 | 무주지사<br>010-2300-4253     |
|                                                               | 익산지사<br>658-9923      | 고창지사<br>553-6699      |                           |
|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